

# “아니 내가 본부장이라니?!”

누구나 한 번쯤 “내가 본부장이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을 터다. 우리 회사 안전생산본부에서는 ‘일일 본부장 체험’을 통해 이런 상상을 현실화했다. 체험에 참여한 엔지니어는 짧은 시간이나마 본부장의 업무를 느끼며 공장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책임감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와 다정함이 묻어나는 사진을 통해 현장에서의 기억에 남을 순간을 만나본다.

## 안전생산본부 설계팀 최재우 매니저

일일 본부장 체험을 하며, 실무진으로서 느낄 수 없는 의사 결정권자의 역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문제 발생 시 빠른 대처를 통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장 안전 가동과 효율 개선을 위해 공사다망하게 움직이는 본부장님의 열정에 놀랐고, 이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생산본부 정유검사팀 이정규 책임매니저

평직원으로서 본부장의 일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한 시간은 다른 시각에서 업무와 회사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높은 직급에서는 이런 일을 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다가 실제로 모든 회의에 본부장님과 함께 참여해보니 일과에서 의사를 결정할 일이 정말 많다는 점과 모든 공정에 대한 중요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 중간중간 업무를 파악하고 다시 회의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일련의 과정은 중압감과 동시에 책임감도 많이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부장님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빡빡한 일정 속에 회사의 미래 먹거리와 향후 운영 방안, 장기 계획까지 생각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책임감과 중압감이 막중한 직급임을 느꼈고, 직원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회사의 미래에 가장 좋은 방향임을 배웠습니다.



## 안전생산본부 기술기획팀 민재걸 선임매니저

일일 본부장 체험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 본부장님과 식사하며 근황을 이야기하고 당일 업무를 미리 계획하며 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팀장 회의에서는 보고 과정 중에 중요한 포인트를 캐치해 세세한 코멘트를 던지는 본부장 역할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 다음으로 참석한 운영 조정 회의에서 우리 회사의 본부장이라면, 단순히 공장 운영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시장 환경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도 필히 갖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간 공정 조정 회의와 환경 투자 회의에서는 현장 상황과 환경 관련 이슈에도 소홀하지 않고 안전 가동에 힘쓰는 본부장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전생산본부장 일과의 간접 체험은 훌륭한 본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안전생산본부 HOU팀 박현수 선임매니저

2023년 2월 7일, 일일 본부장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이른 새벽에 출근하신다는 것을 익히 들어왔기에, 오전 7시부터 체험을 진행하는 게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수많은 회의와 손님맞이, 현장 순방 등을 함께해보니 한편으로는 일찍 출근하지 않았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동일한 루틴으로 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신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고요. 체험 당일 일과는 크게 임원&팀장 온택트 간담회, 환경 투자 회의, 손님맞이, 오후 현장 순방이 있었습니다. 제 담당 공정과는 다른 내용의 업무였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큰 시야로 사업 내용을 바라볼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투자 승인 등 보고를 하러 찾아볼 때는 항상 어려운 본부장실이었지만, 이번 기회로 이 장소가 친숙해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엔지니어가 본부장 체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전생산본부 생산기획팀 이동우 책임매니저

2023년 1월 10일, 7시부터 시작된 일일 본부장 체험은 10년 가까운 근무 기간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발생한 공정 트러블로 인해 예정에 없던 회의가 바로 열렸고, 문제 파악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도출까지 처리하느라 하루가 짧을 정도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미 계획된 업무 일정까지 소화하는 과정은 옆에서 지켜보기에 빠듯한 하루였습니다. 본부장으로서의 업무는 화공학을 넘어 모든 분야에 걸쳐 있어 회의 내용은 따라가기도 벅찼습니다. 평소 업무와 연관된 사안이 아니면 듣고 흘렸을 법한 회사의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기 힘든 위치임을 제대로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협력사와의 간담회 참여뿐만 아니라 평사원으로 참여하기 힘든 자리까지 참관 기회가 주어졌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 큰 팁을 얻은 것은 물론, 회사의 미래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까지 느낀 뜻깊은 체험이었습니다.



## 안전생산본부 계장설비팀 추교준 책임매니저

일일 본부장 체험을 통해 본부장님 옆에서 하루를 보내며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의사 결정을 내리는지를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 없는 하루를 보낸 뒤 체험이 끝날 즈음에야, 본부장이라는 자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바쁘고 매 순간의 의사 결정이 공장 운영과 회사 수익에 직결되는 부담이 큰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짧은 체험이었지만 본부장님 시선에서 회사의 여러 업무를 바라본 좋은 기회였습니다. 체험 이후에도 저는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제게 주어진 과제만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 업무에 대한 책임감으로, 회사의 목표 달성과 공장 전체의 발전을 고민하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